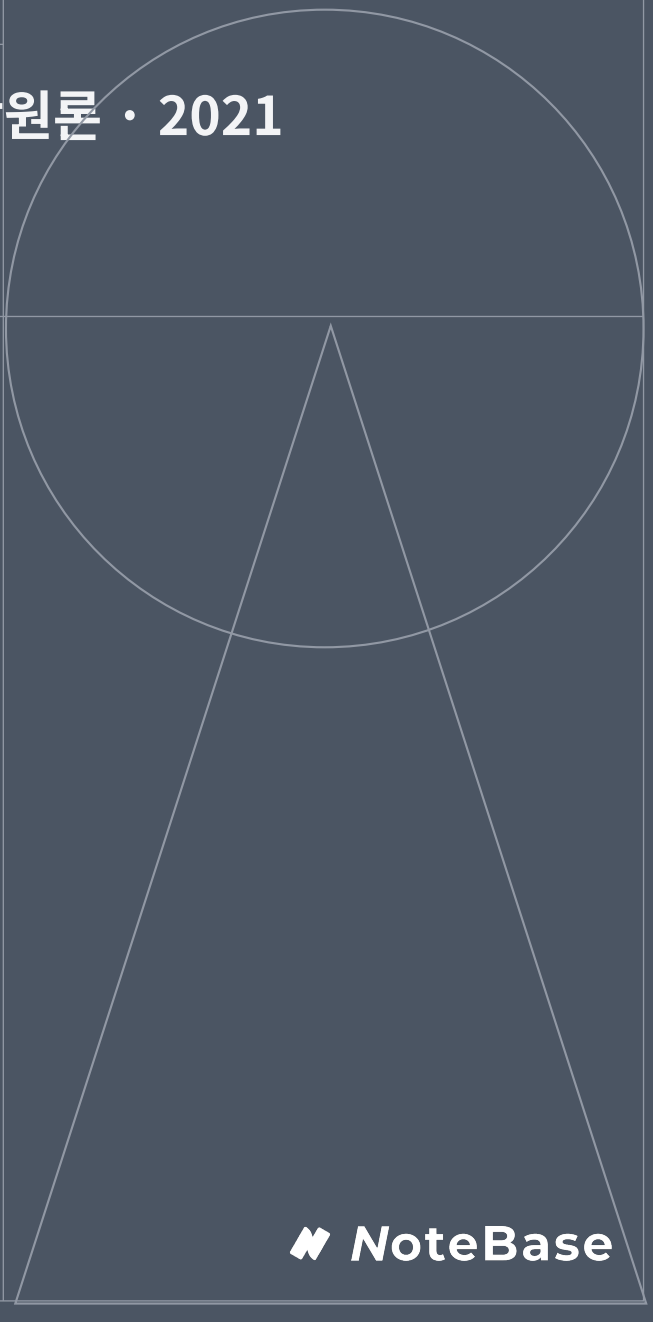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1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1

문 1. 국민총소득은 1,000조 원이고 정부지출은 200조 원, 조세수입은 150조 원, 투자는 250조 원인 폐쇄경제에서의 민간저축은?

① 200조 원

② 250조 원

③ 300조 원

④ 450조 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폐쇄경제에서 국민저축을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나누어 민간저축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국민총소득은 1,000조 원, 정부지출은 200조 원, 조세수입은 150조 원, 투자는 250조 원이다.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저축이 투자와 같고,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사용할 공식

국민저축은 $S = I$이고, 정부저축은 $S_g = T - G$이며, 민간저축은 $S_p = S - S_g$이다. 폐쇄경제에서 해외부문이 없으므로 저축과 투자의 관계 $S = I$를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국민저축은 투자와 같으므로 $S = 250$조 원이다.
2. 정부저축은 $S_g = T - G = 150 - 200 = -50$조 원이다. 즉 정부는 50조 원의 재정적자 상태이다.
3. 민간저축은 $S_p = S - S_g = 250 - (-50) = 300$조 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200조 원은 계산 결과인 민간저축 300조 원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200조 원'이며, 올바르게는 '300조 원'이다.
② X. 250조 원은 국민저축과 같은 투자액이다. 틀린 표현은 '민간저축이 250조 원'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국민저축이 250조 원이고 민간저축은 300조 원'이다.
③ O. 민간저축은 국민저축 250조 원에서 정부저축 -50조 원을 빼어 300조 원이 된다.
④ X. 450조 원은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를 잘못 더해 얻은 값이다. 틀린 표현은 '450조 원'이며, 올바르게는 '300조 원'이다.
계산 결과 민간저축은 300조 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지출 200조 원이 조세수입 150조 원보다 크므로 정부저축은 양수가 아니라 -50조 원이다. 재정적자를 빼면 민간저축은 국민저축보다 커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폐쇄경제 저축 문제는 먼저 $S = I$로 국민저축을 구하고, 다음으로 $T - G$로 정부저축의 부호를 확인한 뒤 $S_p = S - S_g$를 적용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이며, 재정적자이면 정부저축은 음수이다.

NoteBase

문 2. 甲국은 폐쇄경제로 IS-LM곡선이 만나는 균형상태에 있다. 甲국에서 이자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소득만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한 정책 조합은? (단, IS곡선과 LM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한다)

① 정부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② 정부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③ 정부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④ 정부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하여 이자율은 그대로 두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정책 조합을 묻는다.

핵심 개념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며, 정부지출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LM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며, 통화량 증가는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은 높이고 이자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재정확대의 이자율 상승 압력과 통화확대의 이자율 하락 압력을 적절히 상쇄하면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통화량 증가로 LM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두 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며, 재정확대의 이자율 상승 압력과 통화확대의 이자율 하락 압력의 크기를 맞추면 이자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② X: 정부지출 증가와 통화량 감소는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통화량을 감소시킨다'이며, 이자율을 유지하려면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③ X: 정부지출 감소와 통화량 증가는 모두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정부지출을 줄이고'이며,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높이려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
④ X: 정부지출 감소의 이자율 하락 압력과 통화량 감소의 이자율 상승 압력은 상쇄될 수 있지만, 두 정책은 모두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틀린 표현은 '국민소득만 상승시키는' 목적에 맞는 정책 조합이라는 점이며, 이 경우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자율을 유지한다는 조건만 보면 ④도 두 정책의 이자율 효과가 반대여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지출 감소와 통화량 감소는 모두 국민소득을 줄이므로 '국민소득 상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정책의 이자율 방향과 국민소득 방향을 따로 표시한다. 이자율을 고정하려면 이자율 효과가 서로 반대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결합하고, 국민소득을 늘리려면 두 정책의 국민소득 효과가 모두 증가 방향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확대는 소득↑·이자율↑, 통화확대는 소득↑·이자율↓이다. 이자율 고정·소득 증가는 재정확대와 통화확대의 조합이다.

NoteBase

문 3. 어느 공장의 생산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기오염 피해를 입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였다. 공장의 사적 한계비용함수는 $PMC = 1 + 2Q$이고 사회적 한계비용함수는 $SMC = 4 + 2Q$이다. 수요곡선이 $Q_D = 40 - P$일 때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는 생산량이다)

① 0.5

② 1.0

③ 1.5

④ 2.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정적 생산외부효과에서 시장균형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차이로 생기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_D = 40 - P$이므로 역수요곡선은 $P = 40 - Q$이다. 사적 한계비용은 $PMC = 1 + 2Q$,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4 + 2Q$이다. 두 한계비용의 차이인 단위당 외부비용은 $SMC - PMC = 3$이다.

사용할 공식

후생손실은 시장균형량과 사회적 최적량 사이에서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벌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이다. 즉 DWL=(1)/(2)×(시장균형량-사회적 최적량)×(한계비용 격차)를 사용한다. 경쟁시장은 사적 한계비용만 반영하므로, 외부비용이 있는 이 문제에서는 시장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커진다.

계산 과정

1. 시장균형에서는 역수요곡선과 사적 한계비용을 같게 둔다. $40 - Q = 1 + 2Q$이므로 $Q_m = 13$이다.
2. 사회적 최적에서는 역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같게 둔다. $40 - Q = 4 + 2Q$이므로 $Q^* = 12$이다.
3. 과잉생산량은 $13 - 12 = 1$이고, 이 구간의 한계비용 격차는 3이다. 따라서 $DWL = \frac{1}{2} \times 1 \times 3 = 1.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사회적 후생손실은 0.5가 아니라 1.5이다. 0.5는 과잉생산량 1만 삼각형 넓이에 반영하고 한계비용 격차 3을 누락한 값이다.
② X: 사회적 후생손실은 1.0이 아니라 1.5이다. 1.0은 삼각형 넓이 계산에서 높이 3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③ O: 시장균형량은 13, 사회적 최적량은 12이고 단위당 외부비용은 3이므로 후생손실은 $\frac{1}{2} \times 1 \times 3 = 1.5$이다.
④ X: 사회적 후생손실은 2.0이 아니라 1.5이다. 2.0은 과잉생산 구간의 후생손실을 삼각형이 아닌 더 큰 면적으로 계산한 값이다.

오답 포인트

사적 한계비용으로 구한 시장균형량 13을 사회적 최적량으로 착각하거나, 후생손실의 높이인 $SMC - PMC = 3$ 또는 삼각형의 $\frac{1}{2}$를 빠뜨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외부비용 때문에 시장생산량이 1단위 과다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생산외부효과 문제에서는 먼저 수요와 PMC로 시장균형량을, 수요와 SMC로 사회적 최적량을 각각 구한다. 그다음 두 생산량 사이의 구간을 밑변, $SMC - PMC$를 높이로 하여 후생손실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SMC > PMC$, 따라서 시장생산량은 사회적 최적량보다 크고 사중손실은 과잉생산 구간의 삼각형이다.

NoteBase

문 4. 甲국에서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甲국 정부가 X재의 최저가격을 $P = 60$으로 설정하는 대신 X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甲국 정부가 최저가격 설정 전의 거래량을 유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보조금의 총액은? (단, Q_D는 국내 수요량, Q_S는 국내 공급량, P는 X재 가격이다)

◯ 국내 수요곡선: $Q_D = 100 - P$
◯ 국내 공급곡선: $Q_S = P$

① 250
② 500
③ 750
④ 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저가격 아래에서 소비자 보조금이 소비자의 실질 지불가격을 낮춘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거래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총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저가격 설정 전 균형에서는 $Q_D = Q_S$이므로 $100 - P = P$이다.
기존 균형가격은 50, 기존 거래량은 50이다.
최저가격은 60이므로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부담하는 가격은 60이다. 소비자 1인당 보조금을 s라 하면 소비자의 실질 지불가격은 $60 - s$이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 보조금 후 수요량은 $Q_D = 100 - (60 - s)$이다.
보조금의 총액은 단위당 보조금과 실제 유지하려는 거래량의 곱이므로 $s \times Q$이다.
보조금은 판매자가 받는 최저가격 60을 바꾸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만 낮추므로, 수요식에는 $60 - s$를 대입한다.

계산 과정

1. 최저가격 설정 전 균형은 $100 - P = P$이므로 $P = 50$, $Q = 50$이다.
2. 거래량 50을 유지하려면 소비자 수요량이 50이어야 하므로 $50 = 100 - (60 - s)$이다.
3. 이를 풀면 $50 = 40 + s$, 따라서 단위당 보조금은 $s = 10$이다.
4. 총보조금은 $10 \times 50 = 5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250은 단위당 보조금 10에 거래량을 잘못 곱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기존 거래량 50을 곱하여 500이다.
② O. 소비자의 실질가격을 60에서 50으로 낮추려면 단위당 10이 필요하고, 거래량 50에 지급하므로 총액은 500이다.
③ X. 750은 이 문제의 단위당 보조금과 유지 거래량의 곱에서 나오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0 \times 50 = 500$이다.
④ X. 1,000은 보조금 10을 최저가격에서의 공급량 100으로 잘못 계산한 값으로 볼 수 있다. 올바르게는 유지하려는 거래량 50에만 지급하므로 500이다.
계산 결과 총보조금은 500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최저가격 60 자체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보면 수요량이 40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실질가격을 50으로 되돌려 수요량 50을 만들며, 총액 계산에서는 공급량이 아니라 유지 목표인 거래량 50을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하한과 소비자 보조금 문제에서는 먼저 개입 전 균형 거래량을 구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실질가격을 수요식에 대입해 목표 거래량을 만족하는 단위당 보조금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 보조금에 목표 거래량을 곱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 보조금은 소비자 실질가격을 $P - s$로 만든다. 총보조금은 단위당 보조금 $\times$ 실제 거래량이다.

NoteBase

문 5. 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로 IS-LM 곡선이 만나는 거시경제 균형상태에 있다. 甲국이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정책 효과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과 LM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한다)

① 정부지출의 증가는 자본 유입을 유발한다.

② 정부지출의 증가는 순수출을 악화시킨다.

③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④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이 완전히 이동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꿀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완전자본이동성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에 묶인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확대가 자본유입과 환율절상을 거쳐 순수출을 줄이므로 소득증대 효과가 상쇄된다. 반대로 통화확대는 환율절상 대신 환율절하와 순수출 증가를 유발하므로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유지를 위한 통화당국의 개입 때문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제약하지만, 변동환율제는 그 제약을 완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지출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내이자율을 높이려는 압력을 만들고, 완전자본이동성 아래에서는 자본 유입을 유발한다.

② O. 자본 유입은 환율절상을 유발하고, 환율절상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순수출을 악화시킨다. 이 순수출 감소가 정부지출 증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상쇄한다.

③ O.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확대가 환율절하를 유발하여 순수출을 증가시키므로, 통화정책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정환율제보다 커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한다'이다. 실제로는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을 고정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의무가 없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확보되거나 커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통화정책 효과를 뒤바꾸는 점이 함정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약되는 것은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고정환율제이고,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조정되어 통화정책이 작동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자본이동성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먼저 환율제도를 확인한다. 변동환율제라면 재정확대는 자본유입→환율절상→순수출 감소로 상쇄되고, 통화확대는 환율절하→순수출 증가로 강화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은 약하고 통화정책은 강하다. 고정환율제에서는 그 반대이다.

NoteBase

문 6. 통화승수(본원 통화 대비 통화량의 비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불안의 해소로 은행부도의 위험이 낮아졌다.

②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하였다.

③ 가계가 보유하는 화폐 중 현금보유 비중이 감소하였다.

④ 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 보유가 감소하여 은행 대출이 증가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화승수를 높이는 가계의 현금·요구불예금 선택과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1단위가 만들어 내는 통화량의 크기이다. 현금보유비율을 "c", 요구지급준비율을 "r", 초과지급준비금 비율을 "e"라 하면 통화승수는 $m = \frac{1+c}{c+r+e}$로 나타낸다. 따라서 가계의 현금보유비율 c, 요구지급준비율 r, 초과지급준비금 비율 e가 낮아질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제불안이 해소되어 은행부도 위험을 덜 느끼면 가계는 현금보다 은행 예금을 더 보유한다. 현금보유비율 c가 하락하므로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② X.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하락하면 요구불예금의 수익성이 낮아져 가계는 예금 대신 현금을 더 보유하려 한다. 현금보유비율 c가 상승하므로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이자율이 하락하였다'이며, 통화승수를 증가시키려면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상승하여 현금보유비율이 하락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③ O. 가계 보유 화폐에서 현금의 비중이 감소하면 현금보유비율 c가 하락한다. 같은 본원통화로 예금과 대출이 더 확대되어 통화승수가 증가한다.

④ O.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와 요구지급준비율이 감소하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초과지급준비금 비율 e와 요구지급준비율 r이 하락하므로 통화승수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예금 이자율과 현금보유비율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한 선지이다. 요구불예금 이자율 하락은 예금 보유의 유인을 낮추어 현금보유비율을 높이며, 이는 통화승수를 줄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승수 문제에서는 가계가 현금을 덜 보유하는지,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덜 보유하는지를 먼저 본다.
현금보유비율·요구지급준비율·초과지급준비금 비율이 하락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 c·요구지준 r·초과지준 e가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NoteBase

문 7.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의 총비용함수는 $TC = 10Q^2 + 4Q + 10$이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64일 때 생산자잉여는?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54

② 80

③ 90

④ 12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생산자잉여를 구하는 문제이다.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이며, 고정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건 정리

총비용은 $TC = 10Q^2 + 4Q + 10$이고, 고정비용은 10이므로 가변비용은 $VC = 10Q^2 + 4Q$이다. 시장가격은 64원이다.

사용할 공식

완전경쟁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하므로 $P = MC$를 사용한다. $MC = \frac{dTC}{dQ} = 20Q + 4$이다. 생산자잉여는 $PS = TR - VC = P \times Q - VC$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64 = 20Q + 4$이므로 $Q = 3$이다.
2. 총수입은 $TR = 64 \times 3 = 192$이다.
3. 가변비용은 $VC = 10 \times 3^2 + 4 \times 3 = 102$이다.
4. 따라서 생산자잉여는 $PS = 192 - 102 = 90$이다.

선지 판단

① X. 54라는 값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54' → 올바르게는 '90'이다.
② X. 80이라는 값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80' → 올바르게는 '90'이다.
③ O. 가격 64원에서 생산량은 3이고, 총수입 192에서 가변비용 102를 빼면 생산자잉여는 90이다.
④ X. 128이라는 값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128' → 올바르게는 '9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총비용에서 고정비용 10까지 빼서 이윤을 구하는 것과 생산자잉여를 구하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생산자잉여는 가격 이하의 한계비용 부분에 대한 잉여이므로 가변비용만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 문제에서는 먼저 $P = MC$로 생산량을 구한다. 그다음 생산자잉여는 $TR - VC$, 이윤은 $TR - TC$로 구분해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자잉여 = 총수입 − 가변비용, 이윤 = 총수입 − 총비용이다.

NoteBase

문 8. 총생산함수 $Y = AK$를 가정하는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산출량, A는 상수, K는 자본이다)

① 경제성장률이 저축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② 자본은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③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수 있다.

④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생산함수 $Y = AK$를 쓰는 AK 내생성장모형의 특징, 특히 저축률·자본의 범위·수확체감·지속성장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K 모형은 자본 K에 대해 총생산이 비례하는 내생적 성장모형이다. 여기서 자본은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지식자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자본축적에 외부효과가 있으면 경제 전체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저축률은 자본축적 속도를 바꾸므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단순한 AK 모형에서 자본성장률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sA - \delta$이고, 감가상각을 생략하면 sA이다. 틀린 표현은 '저축률에 의존하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저축률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아진다'이다.

② O: AK 모형의 자본은 물적자본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적자본·지식자본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축적 가능한 자원을 포괄한다.

③ O: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보유 자본만 늘리면 한계생산이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파급효과 등 외부효과를 합산한 경제 전체에서는 수확체감이 사라져 AK 형태가 될 수 있다.

④ O: AK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으므로 자본축적 자체가 계속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솔로우 모형의 장기 성장률과 AK 모형의 성장률을 혼동하게 만든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저축률이 장기 1인당 성장률보다 정상상태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AK 모형에서는 저축률이 지속성장률 자체를 바꾼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가 $Y = AK$이면 먼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여부를 본다. 체감하지 않으면 저축률 상승이 자본축적률과 장기 성장률을 높이고, 외생적 기술진보 없이도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K 모형: 넓은 자본, 비체감 한계생산, 저축률이 성장률을 결정한다.

NoteBase

문 9. X재를 공급하는 독점기업 A는 시장 1과 시장 2가 각기 다른 형태의 수요곡선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기업 A가 당면하는 시장 1과 시장 2에서의 역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한계비용이 2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_i는 시장 i에서 X재의 가격, Q_i는 시장 i에서 X재의 수요량이다)

◯ 시장 1: $P_1 = 12 - 2Q_1$
◯ 시장 2: $P_2 = 8 - 2Q_2$

① 시장 2에서의 판매량이 시장 1에서의 판매량보다 크다.

② 시장 2에서의 한계수입이 시장 1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③ 시장 1에서의 판매가격을 시장 2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다.

④ 두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므로 각 시장에서 같은 가격을 책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3급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이 각 시장에서 $MR_i = MC$가 되도록 판매량을 정한 뒤 가격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 1의 역수요함수는 $P_1 = 12 - 2Q_1$, 시장 2의 역수요함수는 $P_2 = 8 - 2Q_2$이다. 한계비용은 두 시장에서 모두 $MC = 2$이다.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둔다.

사용할 공식

역수요함수가 $P = a - 2Q$이면 총수입은 $TR = (a - 2Q)Q = aQ - 2Q^2$이고, 한계수입은 $MR = a - 4Q$이다. 독점기업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공통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 이윤을 극대화하므로 $MR_1 = MR_2 = MC$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시장 1에서는 $MR_1 = 12 - 4Q_1$이므로 $12 - 4Q_1 = 2$, 따라서 $Q_1 = 2.5$이다. 이때 $P_1 = 12 - 2(2.5) = 7$이다.
시장 2에서는 $MR_2 = 8 - 4Q_2$이므로 $8 - 4Q_2 = 2$, 따라서 $Q_2 = 1.5$이다. 이때 $P_2 = 8 - 2(1.5) = 5$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 = (dQ/dP)(P/Q) = -\frac{1}{2}(P/Q)$이다. 따라서 시장 1은 $\varepsilon_1 = -1.4$, 시장 2는 $\varepsilon_2 = -\frac{5}{3}$으로 같지 않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시장 2의 판매량은 $Q_2 = 1.5$이고 시장 1의 판매량은 $Q_1 = 2.5$이므로 시장 2의 판매량이 더 크지 않다. 틀린 표현인 '시장 2에서의 판매량이 시장 1에서의 판매량보다 크다'는 '시장 1에서의 판매량이 시장 2에서의 판매량보다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이윤극대화점에서는 두 시장 모두 $MR_i = MC = 2$이다. 따라서 시장 2의 한계수입이 시장 1보다 크지 않다. 틀린 표현인 '시장 2에서의 한계수입이 시장 1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는 '두 시장의 한계수입은 모두 2로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계산 결과 $P_1 = 7$, $P_2 = 5$이므로 시장 1의 판매가격이 시장 2보다 높다.
④ X. 두 시장의 가격탄력성은 시장 1에서 -1.4, 시장 2에서 $-\frac{5}{3}$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인 '두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동일하므로 각 시장에서 같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시장별 가격탄력성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처럼 한계수입의 크기를 시장별로 비교하는 함정에 주의한다. 가격차별 독점의 최적점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서로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또한 ④처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같아도 균형 가격과 수량이 다르면 가격탄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별 가격차별 문제에서는 각 시장에 대해 먼저 $MR_i = MC$로 Q_i를 구하고, 역수요함수에 대입해 P_i를 구한다. 탄력성 비교가 필요하면 $\varepsilon = (dQ/dP)(P/Q)$에 각 시장의 가격과 수량을 대입해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3급 가격차별 독점의 핵심은 '시장별 가격은 달라도, 최적점의 한계수입은 모두 한계비용과 같다'이다.

NoteBase

문 10.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청장년기에 비해 노년기에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②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단기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③ 케인즈(Keynes)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④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과거의 최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애주기가설, 항상소득가설, 케인즈의 소비함수, 상대소득가설이 평균소비성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애주기가설은 평생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생애 전체에 걸쳐 평탄화하려는 이론이다. 항상소득가설은 일시적 소득보다 항상소득에 맞추어 소비가 결정된다고 본다.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상대소득가설은 현재소득뿐 아니라 과거의 최고소득과의 관계가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은퇴 후 노년기에 소득이 줄어도 저축을 줄여 소비를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기의 평균소비성향은 청장년기보다 높아지는 방향이 일반적이다. 틀린 표현은 '낮아진다'이며, 올바르게는 '높아진다'이다.

② O. 항상소득가설에서는 단기의 일시적 소득 증가는 소비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 소득만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소비보다 소득의 증가폭이 커져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진다.

③ O.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소비가 소득보다 덜 증가한다고 본다.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진다.

④ O. 상대소득가설의 톱니효과에 따르면 과거의 최고소득이 높을수록 현재소득이 같아도 과거의 소비수준을 쉽게 낮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균소비성향은 높아진다.

오답 포인트

①은 노년기에 소비가 줄어든다고만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생애주기가설의 핵심은 노년기에 축적한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를 유지한다는 점이므로,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높아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 변동의 원인과 소비의 반응을 구분한다. 일시적 소득 증가에는 항상소득가설상 소비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케인즈 소비함수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다. 생애주기와 상대소득가설에서는 현재소득 외에 생애 단계나 과거 최고소득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생애주기: 노년기 저축 인출로 평균소비성향 상승. 항상소득: 일시소득은 주로 저축. 케인즈: 소득 상승 시 평균소비성향 하락. 상대소득: 과거 최고소득이 높으면 소비성향 상승.

NoteBase

문 11. 甲국의 중앙은행은 다음해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목표를 각각 4%와 3%로 두고 있다. 甲국의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이 다음해에도 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수량설에 기초할 때 甲국의 다음해 적정 통화성장률은?

① 3%

② 4%

③ 5%

④ 6%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화폐수량설 $MV = PY$에서 통화성장률, 화폐유통속도 증가율, 물가상승률, 실질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질경제성장률은 4%, 물가상승률은 3%,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은 2%이다. 구해야 할 값은 적정 통화성장률이다.

사용할 공식

$MV = PY$의 증가율 관계는 $m + v = p + y$이다. 따라서 $m = p + y - v$이다. 명목산출 증가율 $p + y$은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이며,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하면 같은 명목산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화증가율은 그만큼 낮아진다.

계산 과정

1. 목표 명목산출 증가율은 $p + y = 3\% + 4\% = 7\%$이다.
2. 화폐유통속도가 2% 증가하므로 통화성장률은 $m = 7\% - 2\% = 5\%$이다.
3. 따라서 적정 통화성장률은 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3%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인 '3%' → 올바르게는 실질경제성장률을 더하고 유통속도 증가율을 빼서 5%이다.
② X: 4%는 실질경제성장률만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인 '4%' → 올바르게는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뒤 유통속도 증가율 2%를 빼서 5%이다.
③ O: 3% + 4% − 2% = 5%이므로 적정 통화성장률은 5%이다.
④ X: 6%는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을 합한 뒤 유통속도 증가율을 1%만 차감한 값이다. 틀린 표현인 '6%' → 올바르게는 유통속도 증가율 2% 전체를 차감한 5%이다.

오답 포인트

화폐유통속도 증가율 2%를 통화성장률에 더하는 실수가 함정이다.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같은 거래·산출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량 증가율은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수량설 문제는 먼저 $p + y$로 목표 명목산출 증가율을 구한 뒤, $m = p + y - v$에 대입해 유통속도 증가율을 뺀다.

암기 포인트

통화성장률 = 물가상승률 + 실질성장률 - 유통속도 증가율이다.

NoteBase

문 12. 甲국에서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甲국 정부가 X재의 최고가격을 $P=7$로 설정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甲국의 사회후생의 변화는? (단, Q_D는 국내 수요량, Q_S는 국내 공급량, P는 X재 가격이다)

◯ 국내 수요곡선: $Q_D=16-P$
◯ 국내 공급곡선: $Q_S=2P-8$

① 3만큼 증가
② 3만큼 감소
③ 6만큼 증가
④ 6만큼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 거래량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후생 감소분, 즉 사중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_D=16-P$, 공급곡선은 $Q_S=2P-8$이다.
규제 전 균형은 $Q_D=Q_S$인 점에서 결정된다.
최고가격 $P=7$에서는 수요량이 9, 공급량이 6이므로 실제 거래량은 더 적은 공급량 6이다.

사용할 공식

사중손실은 규제로 거래되지 못한 단위에서 사라지는 순편익의 면적이다. 이 문항에서는 $Q=6$부터 $Q=8$까지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 삼각형 면적을 구한다.
사중손실=(1)/(2)× 거래량 감소분× (한계편익-한계비용)
최고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낮아 공급량을 줄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균형은 $16-P=2P-8$이므로 $P^*=8,\ Q^*=8$이다.
2. 최고가격 $P=7$에서 $Q_D=16-7=9$, $Q_S=2\times7-8=6$이므로 거래량은 6이다. 따라서 거래량은 2만큼 감소한다.
3. 역수요는 $P=16-Q$, 역공급은 $P=4+\frac{Q}{2}$이다. $Q=6$에서 한계편익은 10, 한계비용은 7이므로 두 곡선 사이 높이는 3이다.
4. 사중손실은 $\frac{1}{2}\times2\times3=3$이다. 따라서 사회후생은 3만큼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사회후생은 증가하지 않고 사중손실만큼 줄어든다. 틀린 표현 '3만큼 증가' → 올바르게는 '3만큼 감소'이다.
② O. 최고가격으로 거래량이 8에서 6으로 줄어 발생한 사중손실이 3이므로 사회후생은 3만큼 감소한다.
③ X. 사회후생 변화의 크기는 6이 아니다. 틀린 표현 '6만큼 증가' → 올바르게는 '3만큼 감소'이다. 6은 삼각형의 밑변 2와 높이 3을 곱한 값이며, 삼각형 면적에서는 $\frac{1}{2}$를 곱해야 한다.
④ X. 감소 방향은 맞지만 크기가 6이 아니다. 틀린 표현 '6만큼 감소' → 올바르게는 '3만큼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최고가격으로 가격이 낮아진 사실만 보고 소비자후생 증가를 사회후생 증가로 혼동하기 쉽다.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이전은 사회후생 손실이 아니며, 핵심은 거래량이 8에서 6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또 밑변 2와 높이 3을 곱한 6에 삼각형의 $\frac{1}{2}$를 빠뜨리면 ③·④를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상한제가 제시되면 먼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한다. 상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공급량이 실제 거래량이 되고, 균형거래량과 실제 거래량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드는 삼각형 면적으로 사중손실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구속력 있는 최고가격 → 공급량 감소 → 사중손실은 줄어든 거래 구간의 삼각형 면적이다.

NoteBase

문 13. 다음과 같은 단기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는 현재 인플레이션, π^e는 기대인플레이션, u는 현재 실업률, u_N는 자연실업률이다)

$\pi = \pi^e - \alpha(u - u_N),\ \alpha > 0$

①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α의 절댓값이 커진다.

②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낳는다.

③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④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단기 필립스곡선에서 기대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예상 여부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필립스곡선 $\pi = \pi^e - \alpha(u - u_N)$에서 $\alpha > 0$이므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아진다. 임금·가격의 신축성이 클수록 물가가 실업률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α는 커진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예상된 통화정책의 효과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되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에서 체계적으로 이탈시키지 못하지만,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임금과 가격이 더 신축적이면 실업률 변동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반응이 커져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α의 절댓값은 커진다.

② O. u와 u_N이 주어져 있을 때 π^e가 상승하면 식의 우변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므로 실제 인플레이션 π도 상승한다. 이는 단기 필립스곡선의 상방 이동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예상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예상된 통화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되므로 단기적으로도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에서 변화시키지 못한다.

④ O.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은 당초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되지 않은 물가 변화를 일으켜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예상된'과 '예상되지 못한'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면 예상된 정책은 물가·임금 기대에 즉시 반영되어 실업률 효과가 사라지고, 예상 밖 정책에만 단기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곡선 식에서는 먼저 π^e의 변화가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u - u_N$의 변화가 곡선 위의 이동을 만드는지 구분한다. 합리적 기대 문제에서는 정책이 예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예상된 정책은 실업률 효과가 없고 예상 밖 정책만 단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상된 통화정책은 물가에만, 예상 밖 통화정책은 단기에 실업률에도 영향을 준다.

NoteBase

문 14. 어느 소비자가 재화 A를 x_A만큼 소비하고 재화 B를 x_B만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은 $x_A^{0.4}x_B^{0.6}$이다. 재화 A의 가격은 20이고 재화 B의 가격은 40, 그리고 이 소비자의 소득이 250일 때, 이 소비자의 효용과 최적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 A의 최적 소비 단위는 4이다.

② 재화 B의 최적 소비 단위는 3.75이다.

③ 최적 선택 상태에서 한계대체율은 상대가격 비율보다 작다.

④ 두 재화의 소비를 동시에 2배 증가시킬 때, 효용은 2배보다 크게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각 재화에 지출하는 소득 비중을 이용하여 최적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효용함수는 $U = x_A^{0.4}x_B^{0.6}$이다. 가격은 $p_A = 20,\ p_B = 40$, 소득은 $M = 250$이다. 지수의 합이 $0.4 + 0.6 = 1$이므로 이 효용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사용할 공식

콥더글라스 효용 $U = x_A^a x_B^b$에서 $a + b = 1$이면 최적 소비량은 $x_A = \frac{aM}{p_A}$, $x_B = \frac{bM}{p_B}$이다. 각 지수 a, b가 각 재화에 배분하는 소득 비중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A에는 소득의 40%를 지출하므로 $0.4 \times 250 = 100$을 지출한다. 따라서 $x_A = \frac{100}{20} = 5$이다.
B에는 소득의 60%를 지출하므로 $0.6 \times 250 = 150$을 지출한다. 따라서 $x_B = \frac{150}{40} = 3.75$이다.
최적 선택의 접점 조건은 $MRS_{AB} = \frac{MU_A}{MU_B} = \frac{p_A}{p_B} = \frac{20}{40} = 0.5$이다.

선지 판단

① X. A의 최적 소비량은 4가 아니라 $x_A = 5$이다. 틀린 표현인 '4'는 '5'로 고쳐야 한다.
② O. B의 최적 소비량은 $x_B = \frac{0.6 \times 250}{40} = 3.75$이므로 옳다.
③ X. 최적 선택에서는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 비율과 같아야 한다. 틀린 표현인 '상대가격 비율보다 작다'는 '상대가격 비율과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두 재화를 동시에 2배로 늘리면 효용은 $2^{0.4} \times 2^{0.6} = 2$배가 된다. 틀린 표현인 '2배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정확히 2배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소득 250을 가격 20으로만 나누어 지출비중 0.4를 빠뜨릴 때 틀리기 쉽다. ③은 최적점에서 MRS와 상대가격이 같다는 접점 조건을 부등식으로 바꾼 함정이다. ④는 지수의 합이 1이면 규모수익 불변이라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콥더글라스 효용에서 지수의 합이 1이면 먼저 각 지수를 소득지출 비중으로 보고 $x_i = \frac{\alpha_i M}{p_i}$를 계산한다. 이어서 최적점에서는 MRS와 상대가격이 같은지, 지수의 합으로 효용의 규모변화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콥더글라스의 지수는 지출비중, 최적점에서는 MRS=상대가격, 지수 합이 1이면 두 재화 2배 시 효용도 2배이다.

NoteBase

문 15. 기업 A는 노동만을 이용하여 재화 X를 생산한다.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sqrt{L}$이며 X의 시장가격은 500이다. 기업 A는 노동에 대해 수요독점자이며,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은 $w = L$이다. 기업 A가 선택할 임금률과 고용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 Q는 생산량이다)

① 임금률: 25, 고용량: 25

② 임금률: 25, 고용량: 50

③ 임금률: 50, 고용량: 25

④ 임금률: 50, 고용량: 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한 수요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이용하여 임금률과 고용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수요독점기업은 노동 1단위를 더 고용할 때 기존 노동자에게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의 한계비용과 임금률이 다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sqrt{L}$이고 산출물 가격은 500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VMP_L = 500 \times \frac{1}{2\sqrt{L}} = \frac{250}{\sqrt{L}}$이다.
노동공급은 $w = L$이므로 총노동비용은 $wL = L^2$이다.
구해야 할 값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량 L과 그때 노동공급곡선에서 결정되는 임금률 w이다.

사용할 공식

수요독점기업의 고용조건은 $VMP_L = MFC_L$이다. 여기서 노동의 한계비용은 총노동비용의 미분값이므로 $MFC_L = \frac{d(L^2)}{dL} = 2L$이다. 노동공급곡선 $w = L$ 자체는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률이지, 추가 노동 1단위의 비용인 한계비용이 아니다.

계산 과정

이윤은 $\pi = 500\sqrt{L} - L^2$이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frac{250}{\sqrt{L}} = 2L$이다.
따라서 $250 = 2L^{3/2}$, $L^{3/2} = 125$이므로 $L = 25$이다.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하면 $w = L = 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고용량은 25이고, 노동공급곡선 $w = L$에 따라 임금률도 25이다.
② X. '고용량 50'이 틀린 표현이다. 한계비용과 한계생산가치를 같게 하면 고용량은 25이므로, 올바르게는 '임금률 25, 고용량 25'이다.
③ X. '임금률 50'이 틀린 표현이다. 고용량 25에서 노동공급곡선이 정하는 임금률은 25이므로, 올바르게는 '임금률 25, 고용량 25'이다.
④ X. '임금률 50, 고용량 50'이 모두 틀린 표현이다. 이 조합에서는 $VMP_L = 250/\sqrt{50}$이고 $MFC_L = 100$이어서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임금률 25, 고용량 25'이다.

오답 포인트

노동공급곡선 $w = L$을 한계비용으로 그대로 쓰는 것이 함정이다. 수요독점기업은 고용을 늘릴 때 임금률이 올라가며 기존 고용자에게도 그 임금률을 지급하므로 $MFC_L = 2L$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독점의 노동고용 문제에서는 먼저 노동공급으로 총노동비용 $w(L)L$을 만들고, 이를 미분하여 MFC_L를 구한다. 그다음 $VMP_L = MFC_L$로 고용량을 구한 뒤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하여 임금률을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독점에서는 $VMP_L = MFC_L$, 임금률은 고용량을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하여 구한다. 노동공급이 우상향하면 $MFC_L > w$이다.

NoteBase

문 16.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②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③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④ 실업률은 일정한데 고용률이 상승했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와 세 지표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이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자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곱한 값이므로,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1 - 실업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취업자 수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하더라도 실업자 수가 더 큰 폭으로 늘면 실업률도 상승할 수 있다.

② O. 구직을 시작한 사람이 늘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때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③ O. 취업자 수가 늘면 고용률이 상승할 수 있고, 동시에 구직·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다'이다. 실업률이 일정하면 (1 - 실업률)도 일정하므로, 고용률이 상승할 때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고용률과 실업률은 분모가 서로 달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반면 실업률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지표의 분모를 구분한다. 실업률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1 - 실업률)의 관계에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방향이 같은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1 - 실업률)이다. 실업률이 고정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동행한다.

NoteBase

문 17. 甲국에서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10의 세금이 부과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P_B)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P_S)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_D는 국내 수요량, Q_S는 국내 공급량, P는 X재 가격이다)

◯ 국내 수요곡선: $Q_D = 700 - P$
◯ 국내 공급곡선: $Q_S = 200 + 4P$

① P_B: 98, P_S: 108
② P_B: 108, P_S: 98
③ P_B: 100, P_S: 110
④ P_B: 110, P_S: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에게 부과한 종량세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를 만들 때, 세금 포함 가격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두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국내 수요곡선은 $Q_D = 700 - P_B$, 국내 공급곡선은 $Q_S = 200 + 4P_S$이다. 소비자에게 개당 1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보다 10만큼 높다. 즉, $P_B = P_S + 10$이다.

사용할 공식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Q_D = Q_S$를 사용한다. 다만 수요곡선에는 소비자 가격 P_B를, 공급곡선에는 공급자 가격 P_S를 각각 대입한다. 소비자 세금은 두 가격의 쐐기 $P_B - P_S = 10$를 만들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세금을 반영하면 $P_B = P_S + 10$이다.
2. 균형조건에 대입하면 $700 - P_B = 200 + 4P_S$, 즉 $700 - (P_S + 10) = 200 + 4P_S$이다.
3. 이를 정리하면 $690 - P_S = 200 + 4P_S$, $490 = 5P_S$이므로 $P_S = 98$이다.
4. 따라서 $P_B = P_S + 10 = 10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P_B = 98$, $P_S = 108$은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10 적게 내는 조합이다. 소비자 세금에서는 $P_B > P_S$여야 한다. 틀린 표현인 가격의 방향을 바로잡으면 $P_B = 108$, $P_S = 98$이다.
② O. 계산 결과 소비자 가격은 108, 공급자 가격은 98이며, 두 가격의 차이도 세금 10과 일치한다.
③ X. $P_B = 100$, $P_S = 110$ 역시 소비자 가격이 공급자 가격보다 10 낮다. 틀린 가격 관계를 바로잡으면 $P_B = P_S + 10$이어야 하며, 올바른 값은 108과 98이다.
④ X. $P_B = 110$, $P_S = 100$은 가격 차이 10은 맞지만 균형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때 수요량은 $700 - 110 = 590$, 공급량은 $200 + 4 \times 100 = 600$으로 서로 다르다. 올바른 조합은 $P_B = 108$, $P_S = 98$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는데도 $P_B < P_S$로 두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④처럼 가격 차이가 세금 10과 같더라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균형가격 조합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량세 문제에서는 먼저 세금 부담 주체에 따라 두 가격의 관계를 세운다. 그다음 수요식에는 소비자 가격, 공급식에는 공급자 가격을 대입하여 $Q_D = Q_S$로 푼 뒤, 가격 차이가 세금과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 세금: $P_B = P_S + t$. 수요에는 P_B, 공급에는 P_S를 넣는다.

NoteBase

문 18.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인 기업의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이윤은 0이다.

②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③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④ 균형 산출량이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보다 작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에서 경제적 이윤, 가격과 한계비용의 관계, 그리고 과잉설비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은 상품 차별화로 각 기업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지만, 기업의 진입·퇴출은 자유로운 시장이다. 장기에는 진입으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며, 기업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생산하므로 과잉설비가 발생한다. 이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이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므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선지별 해설

① O. 장기에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조정된다.

② O. 장기균형 산출량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산출량보다 작으므로 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과잉설비, 즉 규모의 경제가 남아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

③ X. 독점적 경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결정되고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으므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틀린 표현인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 올바르게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며,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이다.

④ O. 장기균형 산출량은 평균비용곡선의 하향 구간에 위치하여 평균비용을 극소화하는 산출량보다 작다.

오답 포인트

③은 완전경쟁의 장기균형 조건인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를 독점적 경쟁에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독점적 경쟁에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기 독점적 경쟁을 보면 먼저 자유진입 때문에 경제적 이윤은 0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우하향 수요곡선이면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고, 평균비용 최저점의 왼쪽 생산이면 과잉설비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 독점적 경쟁: 경제적 이윤 0,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큼, 과잉설비 발생이다.

NoteBase

문 19.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학파에 따르면 구축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만큼 크다.

② 리카도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정부공채는 민간부문의 자산이 아닐 수 있다.

③ 공급중시 경제학자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가 조세수입의 증가를 낳을 수 있다.

④ 케인즈 단순 모형에 따르면 정액세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절댓값이 더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학파의 구축효과,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공급중시 경제학, 케인즈 단순모형의 재정승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학파에서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를 유발하여 구축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난다.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는 국채 발행이 미래 조세부담을 뜻하므로 정부부채를 민간의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공급중시 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노동·저축·투자의 유인을 높여 과세표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는 $1/(1-c)$, 정액세승수는 $-c/(1-c)$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전학파의 완전고용 국민소득 결정에서는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같은 규모만큼 감소시키는 완전 구축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 효과는 상쇄된다.

② O.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에서는 정부가 국채로 재원을 조달해도 민간은 미래의 조세부담을 예상하여 저축을 늘린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공채는 민간부문의 순자산이 아닐 수 있다.

③ O. 공급중시 경제학은 높은 세율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며, 세율 인하로 과세표준이 충분히 확대되면 조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④ X. 틀린 표현은 '정액세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절댓값이 더 크다'이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는 $1/(1-c)$, 정액세승수의 절댓값은 $c/(1-c)$이므로 $0 < c < 1$에서 정부지출승수의 절댓값이 더 크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승수가 정액세승수보다 절댓값이 더 크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두 승수의 분모가 같다는 점만 보고 크기를 같게 보거나, 정액세승수의 부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정액세승수에는 한계소비성향 c가 곱해지므로 절댓값이 정부지출승수보다 작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승수 비교에서는 정부지출승수의 분자가 1이고 정액세승수의 절댓값 분자가 c임을 확인한다.
한계소비성향은 $0 < c < 1$이므로 정부지출승수의 절댓값이 항상 더 크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은 1만큼 직접 지출되지만, 감세는 소비로 전환되는 c만큼만 먼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지출승수의 절댓값이 더 크다.

NoteBase

문 20. 甲국 경제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있다. 현재의 1인당 자본량 k^*는 황금률(golden rule) 수준의 자본량 k_G보다 크다. 甲국은 저축률을 변화시켜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는 균제상태로 이동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축률이 하락하면,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이 달성될 수 있다.

②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③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면 일인당 소득이 상승한다.

④ k^* 수준에서의 자본의 한계생산은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보다 크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에서 현재의 정상상태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보다 클 때, 저축률 인하가 자본·한계생산·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상상태 자본량 k^*는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수준이며, $sf(k^*) = (n+\delta)k^*$를 만족한다. 황금률 자본량 k_G는 정상상태 1인당 소비를 최대로 하는 자본량으로, $f'(k_G) = n + \delta$를 만족한다. 현재 $k^* > k_G$이면 자본이 과잉축적된 상태이므로 저축률을 낮춰 자본량을 줄이면 k_G로 이동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현재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크므로 저축률을 낮추면 정상상태 자본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저축률 인하를 통해 황금률 자본량 k_G에 도달할 수 있다.

② X. $k^* > k_G$에서 k_G로 자본량이 감소하면 한계생산체감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 $f'(k)$은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감소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증가한다'이다.

③ X. 1인당 소득은 $y = f(k)$이고 생산함수는 자본량에 대해 증가하므로, k^*에서 k_G로 자본량이 감소하면 1인당 소득은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상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하락한다'이다. 황금률이 극대화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정상상태 1인당 소비이다.

④ X. k_G에서는 $f'(k_G) = n + \delta$이고, $k^* > k_G$이면 한계생산체감으로 $f'(k^*) < f'(k_G)$이다. 따라서 k^*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은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보다 작다. 틀린 표현은 '크다'이며, 올바르게는 '작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황금률은 1인당 소득을 가장 크게 하는 자본량이 아니라 정상상태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하는 자본량이다. 또한 과잉축적 상태에서는 자본량을 줄일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은 커진다는 점이 ②와 ④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재 자본량과 k_G의 크기를 비교한다. $k^* > k_G$이면 저축률을 낮춰 정상상태 자본량을 줄이고, 자본량 감소에 따라 1인당 소득은 감소하며 자본의 한계생산은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황금률: $f'(k_G) = n + \delta$, 소비 최대. 과잉축적 $k^* > k_G$: 저축률↓ · 자본량↓ · 소득↓ · 한계생산↑ 이다.

NoteBase